

WE WHO FEEL DIFFERENTLY

INTERVIEWS

때로는 아주 느리게, 때로는 아주 획기적인 방식으로 발전을 향해 나갈 수 있겠죠. 그 경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느 곳을 향해야 하는지는 분명하니까요.

최현숙과 최몽과의 인터뷰

2010년 6월 3일
경복궁, 대한민국 서울

Carlos Motta: 두 분 다 자기 소개를 좀 넓게 해주시겠어요? LGBTQ 인권과 관련해서 하는 활동이나 투쟁 등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다요.

CHOI Hyun-sook: 저는 2004년부터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진보정당에 성소수자위원회를 만들고 성소수자 문제를 제도정치영역에서 의제화하는 일들을 했죠. 특히 성전환자 성별변경법안이나 동성애자 결혼합법화안 등을 주도했어요,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요. 하지만 이것들이 대통령 선거나 총선에서 진보정당의 정책으로 쓰일 수는 있었죠.

2007년에는 차별금지법에 성소수자의 성적체성에 따른 차별 역시 금지 항목에 포함되도록 싸웠어요. 또 당에서 이듬해 총선에 커밍아웃한 동성애자 후보를 내기로 결정해서, 총선 준비를 시작했죠. 그래서 2008년 총선 때 종로지역에서 출마했어요.

당선되지는 못했지만, 선거 이후에는 총선 후보일 당시 의제화했던 정책들이나 공약들과 관련된 활동을 했어요. 성소수자만이 아니라 다양한 소수자들, 노인들과 저소득층 등과 관련된 의제들을 지역에서 실천하려고 애쓰고 있죠. 특히 요즘에는 사회서비스노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아동돌봄, 환자돌봄 등 돌봄활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조직을 만들려 하고 있어요. 저도 직접 돌봄활동을 하고 있고요. 주로 종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MONG Choi: 저는 2004년부터 레즈비언 인권단체에서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했어요. 그러다 나와서 레즈비언 대중단체를 조직을 시도했는데 잘 되진 않았죠. 이후에 섹슈얼리티와 레즈비언 시민권과 관련해서 연구모임을 하다가 2007년에 차별금지법 투쟁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당시에 여러 성소수자 운동가들과 무지개운동이라는 단체를 조직했었어요.

이후에는 최현숙 씨와 함께 총선 활동을 했어요. 그 때 약간의 가능성을 발견했죠. 정치활동은 개별적인 단체 활동으로는 풀 수 없는 차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함께 진보신당 내에 성정치위원회를 꾸려서 활동했고, 위원장이었던 최현숙 씨가 지역에서 활동을 하게 되자 뒤이어 위원장을 맡게 되었어요.

지금은 우선 HIV 감염인들의 노동법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어요. ILO 국제기준을 민주노총에 처음으로 들여오게 됐는데, 한국 내부 사정에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또 성소수

WE WHO FEEL DIFFERENTLY

INTERVIEWS

자 노동권이나 주거권 문제를 구체적인 정책 차원에서 풀어내려는 활동도 하고 있고요. 단지 성소수자만이 아니라 일인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들의 주거권도 함께 고민하고 있죠.

CM: 한국의 정치적 배경과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퀴어 이슈를 그 속에서 어떻게 제기하시나요? 제안하시는 의제들이 현재 정치 제도에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제도권에서 이를 어떻게 수용하나요?

CH: 한국의 정치적 배경을 조금만 설명하자면 6-70년대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80년대부터 소위 노동운동을 중심으로 민중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 속에서 93년부터 성소수자들이 정체성과 관련된 인권운동을 시작했구요. 그리고 2000년에 진보정당이, 2004년에 성소수자 위원회가 만들어졌어요.

한국은 1987년 후반 정도까지 가장 보수적인 당 하나가 계속 정권을 재창출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일당 독재라고 말하기에는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성숙하긴 했지만요. 그러다가 김대중 정권이 97년에 출범하면서 소위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죠. 그렇게 제일 야당이 10년 정도 집권을 하다가 지금은 또 보수여당 쪽으로 회귀된 상태예요. 앞으로 당분간은 보수적인 당들 사이에서 정권이 오고 가지 않을까 생각해요. 물론 그 당들은 스스로가 민주고 진보라고 말하긴 하지만, 진보신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도만 달랐지 본질적으로 보수죠.

현재 성소수자 의제를 정치화시키는 곳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에요. 둘 다 상당히 왼쪽으로 치우쳐 있죠. 성소수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좌파 정당뿐이에요. 한국의 성소수자 운동이 좌파적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성정치 운동은 좌파정치와 결합하고 있어요.

MC: 성소수자 운동이 등장하게 된 것은 정권교체나 자유주의적 패러다임의 등장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해요. 사실 예전에는 좌파정당에서도 성소수자 의제를 별로 염두에 두지 않았고 반대하는 입장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민주노동당 내에서 민족주의적이고 성보수적인 색채에 반대하는 당내투쟁이 있었고, 이후 저희가 공식적으로 당에서 퇴출하는 이유가 되었던 것 같아요.

CM: 여기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시민권과 정치적 정체성의 인정에 관한 것인 것 같은데요. 이는 LGBTQ 인권을 법제화하는 데 거쳐야 할 첫 번째 단계이고요. 이렇게 보수적인 환경에서, LGBTQ의 시민권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전략들을 구상하고 있나요? 어떤 국제적인 모델을 따르고 있나요, 아니면 지역에 맞는 새로운 것을 만들고 있나요?

CH: 심지어 진보신당 내에도 성보수적인 입장들이 상당히 많아요. 서구와 달리 한국사회에는 유교적 전통과 아주 극단적인 가족주의가 자리 잡고 있죠. 하지만 이것들만으로 한국사회를 설명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성보수주의와 가족주의는 자본주의와 같이 간다고 생각해요. 가족주의와 이성애주의, 가부장주의를 강화시키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체제가 자본주의라는 거죠. 자본주의가 끊임없이 노동자를 재생산해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

WE WHO FEEL DIFFERENTLY

INTERVIEWS

가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중심주의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러면 남성중심적 가부장중심체제가 강화될 수밖에 없어요. 가족주의 속에서 정상인 시민과 비정상인 시민을 가르는 것은 자본주의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좌파정당은 반자본주의와 어우러지는 거죠.

MC: 한국사회의 성소수자 운동은 미국사회의 성소수자 운동과 매우 유사해요. LGBT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해서 커밍아웃을 하고, 커뮤니티를 이루고, 서로 상담도 하고 돕다가 정치적인 액션도 취하고..... 하지만 이런 정체성 중심의 운동에 비판적인 지점들이 있죠. 커뮤니티 내에서만 서로 돕고 행복한 라이프스타일을 만들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게 되고, 성소수자의 권리를 정치적인 차원, 사회적인 차원에서 생각하지 않게 돼요. "그게 진짜 문제가 되나? 그냥 얘기로 해결하면 되는 것 아닌가?"하고 여기는 거죠.

이런 정체성 중심의 운동에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민주노동당에서 성소수자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하지만 이 위원회가 제기하는 성소수자 의제는 별도의 운동으로만 활용되고 전체적으로 이슈화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성소수자만이 아니라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등 다양한 소수자들을 포괄하는 보편적인 차원에서 주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본주의로부터 쟁취해야 할 소수자들의 주거권과 노동권 등을 논의하고 있죠.

CM: 자본주의라는 조건 하에서만 형성될 수 있는 LGBT 정체성에 대해서 당이 취하는 논리적이고 정치적인 입장은 무엇인가요? 달리 표현하면,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태도와 동시에 그로부터 취할 것을 취하는, 즉 자본주의에 맞춰주는 태도를 어떻게 양립시키고 있나요?

CH: 솔직히 과연 자본주의가 성소수자들을 정체화하게 한 걸까 의심스러워요. 물론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와 함께 문화와 학문 내에 여러 담론들, 특히 여성주의적 담론들이 생겨났죠. 그 속에서 정상성, 이성애만이 정상적이라고 보는 관점에 대한 문제의식이 생겼고요. 그 과정에서 다양하고 각별한 사람들을 발견해낸 거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아직 명명되지 않았을 뿐,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요.

소위 LGBT라는 것은 서구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미 한국에도, 인도에도, 태국에도 있었어요. 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한 것은 서구의 학문 덕분일 수는 있겠지만요. 저는 한국의 성소수자는 미국이나 유럽의 성소수자와 다른 정체성과 다른 문화, 다른 삶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본주의가 성소수자들을 정체화할 수 있게 해줬다고 생각하지도 않고요. 물론 필요하다면 성소수자들을 이용할 생각은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가족중심주의를 향하고 있다고 봐요.

MC: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어요. 개인적으로 자본주의라는 근대적 공간 자체가 성소수자의 출현에 중요했다고 생각하긴 해요. 하지만 이 성소수자가 어떤 것이지, 특히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질문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LGBT가 사회 속에서 분절된 채 결혼 제도 같은 기존의 체제에 맞추어가며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권리를 새로이 쟁취해야 하는지 물어야 하는 거죠. 기존 체제와 자본주의가 맞물려 작동하고

WE WHO FEEL DIFFERENTLY INTERVIEWS

있는 것도 분명하고요.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를 어떻게 바꿔나가야 하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단계가 아닐까 해요.

CM: 여기에서 흥미로운 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간의 관계인 것 같은데요. 이 둘은 전세계 거의 모든 곳에서 너무도 얽혀 있어서 언제나 고려해야 하죠. 저 역시도 우리의 투쟁이 어떤 사회적 변화라는 목적을 갖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당원으로서, 활동가로서, 정치인으로서 스스로를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나요? 우리가 정체화할 수 있도록 해주는 조건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사회적 변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 이 세계 안에 속하면서 동시에 이 세계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좌파 정치의 고전적인 문제이죠.

CH: 사실 제가 사회운동을 시작한 핵심적인 이유는 예수쟁이이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그렇고요. 저 안에서 사회운동가, 페미니스트, 예수쟁이는 완벽히 하나의 입장으로 일치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자본주의 체제가 아닌 다른 사회에 들어가더라도 끊임없이 소수자들을 향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체 사회를 다 바꾸어 놓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회 변혁의 흐름 속에서 소외되어 있는 약자들을 선택하는 게 저의 기본적인 시선이예요. 그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올바르니까요.

그런데 정말 이 사회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변혁시킬지는, 과연 변혁이 성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한국 정치에서 소위 진보정당이 깃발을 걸었다가 꺾이지 않고 온 건 이제 겨우 10년이거든요.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확인됐듯이 그 10년의 성과가 정말 적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비슷한, 함께 정의로움을 추구하는 많은 활동가들을 보면 다양한 가능성을 발견해요. 생태 운동, 인권 운동, 반전 운동, 페미니즘 운동, 성매매 반대 운동..... 이 모든 것들이 점점 전문화되고 성숙해지면서 서로 간에 다양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본주의는 지금 엄청난 위세를 떨치는 것 같으면서도, 금융위기 등을 겪고 있어요. 저는 우리가 하는 여러 활동들이 자본주의라는 체제 안에서 계속 구멍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구멍들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된다면, 올바른 사회를 향한 발전을 이루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때로는 아주 느리게, 때로는 아주 획기적인 방식으로 발전을 향해 나갈 수 있겠죠. 그 경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느 곳을 향해야 하는지는 분명하니까요.

MC: 영화 <밀크>가 생각나네요. 사실 저도 원래 정치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최현숙 씨가 출마하시면서, 우리가 대의제나 정책들 속에 성소수자라는 존재를 어떻게 드러내고, 우리의 의제를 대변할 정치인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는 이번 지방선거 때 우리 의제를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지역의 정치인들을 많이 만났었죠. 또 비단 정당으로만 환원될 수 없는 정치와 운동들이 네트워킹되고 종합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CM: 두 분이 당내에서 하는 좀 더 실질적인 활동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두 분이 현재 하고 계신 활동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미래에 바라는 바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겠

WE WHO FEEL DIFFERENTLY INTERVIEWS

어요? 그리고 그를 이루기 위해 사용하는 전략은 어떤 것이 있나요?

CH: 전 이제 나이가 54이고, 사회운동은 24년 째, 진보정치운동은 10년 째, 성소수자 운동을 중심으로 활동한 것은 7년 째예요. 이전처럼 지금도 저한테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지역이에요. 사실 성소수자 운동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허공에다 대고 떠드는 느낌이 든다는 거였어요. 직접 어떤 동네에 가서 이 의제를 가지고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고리가 없는 느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운동이 한국에서 정말 절박한 것이었고, 나 자신에게도 행복하지만 절박한 것이어서 했죠.

종로에 출마하면서 주장했던 것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해낼지를 고민하고 있어요. 유권자들이 제 말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저는 한 명의 정치적인 공인으로서 유권자들에게 약속한 것이니까요. 이제 내 나머지 삶의 내용은 성정치의 의제들, 그리고 진보의 다양한 의제들을 지역 속으로 갖고 들어가는 방법을 탐색하는 것이 될 것 같아요.

MC: 요즘 사람들은 당 내에서 성소수자 관련 정치 의제에 어떻게 동의를 이끌어낼지, 그리고 어떻게 정책으로 만들어낼지 등이 가장 고민인 것 같아요. 물론 당도 중요하지만, 사실 언제 망할지도 모르죠. 저는 이런 문제들을 당 자체의 미래와는 별개로 장기적으로, 견실하게 끌고 가고 싶어요.

CM: LGBT 인권을 보조하는 어떤 법적 제도도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전통적 사회가 아직도 강하게 남아있는 상황에서, 한국 LGBT 커뮤니티의 사람들이 여전히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LGBTQ 커뮤니티에 속하더라도 건강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그러한 가능성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건가요?

CH: 당연한 차별을 침묵하면서 조용하게 살기로 한다면 상당히 편하게 살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차별을 구체적인 아픔으로 느끼면서 그 차별을 없애겠다고 걱정한다면 어렵지만 동시에 당당하고 행복해지겠죠.

CM: 더 덧붙이고 싶은 말은 없으신가요?

MC: 한국의 LGBT와 외국 LGBT 간의 차이는 정치적, 사회적 배경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한국은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굉장히 크고, 오프라인에서도 아시아에서 가장 큰 바가 있죠. 하지만 사회정치 제도 같은 것은 거의 부재해요. 성소수자 운동을 제안하면 얼굴을 드러내고 자기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대부분이 그것을 굉장히 경계시해요. 그러는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것을 잘 풀어내는 것이 모든 활동가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